무진장, 지역안전도 '1등급'

2018년 행안부 자연재해 진단 평가

진안군은 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한 2018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 도 진단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 급을 받았다고 밝혔다.

군은 지난해 지역안전도 2등급에 이 어 올해 1등급을 달성하면서 자연재 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. 지역안전도 진단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위촉한 학계, 전문기관 등 민간 방재전문가로 진단반을 구성하고 전국 228개 자치 단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서면과 현지진단을 실시, 매년 등급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.

올해는 재해발생 빈도 등 사회적・ 지형적 취약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14 개 항목과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ㆍ정 책 수립 추진 노력도를 평가하는 예 방대책 28개 항목, 재난예방시설 설치 를 평가하는 예방시설 13개 항목 등 3 개 분야 총 55개 지표에 대해 안전등

급을 평가했다.

결과는 총 1~10등급으로,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된

진안군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 인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과 자연재 해 취약지역 관리?점검 및 유관기관 의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왔다.

이항로 군수는 "이번 평가결과에 만 족하지 않고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 전을 기하고, 민관이 일체되는 방재시 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

장수군도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1등 급을 받아 안전 도시로 인정받았다.

장수군은 5일 매년 지역별 자연재해 에 대한 재해위험요인, 예방대책추진, 예방시설정비 등 3요소 기준 지역안 전도 진단 결과 1등급을 받았다고 밝

장수군은 지난해 9등급에 머물렀던 지역안전도 지수를 '안전도시'로 탈 바꿈하기 위해 지연재해대응 모의 훈 련 실시 등 행정노력과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대비를 진행해 1등급을 받 은 것으로 이번 안전도 진단 결과는 더욱 의미 있다.

장영수 군수는 "예측할 수 없는 자 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 모든 행정력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 군민들 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 겠다"며 "안전하고 살기 좋은 장수군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무주군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.

이번 진단에서 무주군은 재해위험요 인 저감, 예방대책추진, 예방시설정비 등 60개 평가항목 대부분에서 호평을

/진안=우태만 기자・장수=고판호 기 자 • 무주=전문선 기자

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, 의정대상 최우수상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등 높이 평가

무주군의회 유송열의장이 5일 국 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'지방자치평가 의정대 상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·기초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 정책 입안 우수의원, 주민복지 증 대, 삶의 질 향상, 경쟁력 있는 지 역발전 시책 장려 등을 평가해 시 상하는 상이다.

유송열 의장은 제7대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어 현재 제8대 무주군의 회 의장으로서 쉼 없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생생한 현장 의 정활동을 전개하고, 「무주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는 등 정책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민생과 서민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또한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안상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



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이 2018 대 한민국 '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' 에 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한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 면에서 활동한 점에서도 후한 점 수를 받았다.

유송열 의장은 "의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."며, "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 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."고 밝혔 /무주=전문선 기자

지역 **메 아 리**



오늘은 나도 진안군청 공무원 관내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교육

진안군은 지난 4~5일 진안중학교・ 진안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68명을 대 상으로 '스타트 업(業)! 진안군청에서 만나는 미래체험'프로그램을 운영했

진안군이 기획한 공무원 체험 프로그 램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하는 자유학기 제 교육과정 중 하나다.

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 리엔테이션을 거쳐 명예공무원 임용장 을 받고 선서를 하는 등 다양한 공무원 체험을 했다.

또한 관심분야 실과소 공무원과의 멘 토링을 통해 사무실을 견학하고 실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생생한 공직생활을 들어보는 기회도 가졌다.

군 관계자는 "공무원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진 로와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 겠다."고 말했다. /진안=우태만 기자

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박차

지아군 주처면(면장 아용남)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 기 위해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갔

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6 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, 총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 건강 센터, 건강도서관, 교통환경 취약공간 개선, 가로경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지난해 9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 차례의 회의를 거쳐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의견을 모아 지난 8월 기 본계획을 확정했다. 최근 실시설계를 담당할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시작된 만큼 내년 9월 실시설계 완료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2020 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또한 내년 1월부 터는 인재육성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 업 프로그램 개발, 홍보컨설팅 등의 지 역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해 사업완공 후 차질 없는 운영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 /진안=우태만 기자 이다.

장수 농기센터, 농업기계 교육사업 '우수기관'

농업기계 안전운전 플랭카드 · 부녀자반 교육 · 등화장치 부착 등 추진 호평

장수군은 5일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 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장수 군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.

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부 터 4일까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진행

된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에 서 교육우수기관 표창장을 받았다.

센터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농업 기계 안전홍보 캠페인, 영농철에 농업 기계 안전운전 플랭카드, 농업인 안전 교육, 부녀자반 교육, 등화장치 부착,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등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해 높 은 평가를 받았다.

또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계 6,500 여대를 임대하고 안전운행 및 조작관 리요령을 교육해 올해 임대농업기계 임차 농가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다.

장수군 농기계 사업단에서는 농업기 계 임대농가의 안전을 위해 매년 농 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해 농민의 안 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농협에서 가입 한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도 펼치고 /장수=고판호 기자



장수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교육우수기관 표창장을 받았다.

장수군 장수전통시장 문화행사

장수군이 주최하고 장수전통시장상 인회(상인회장 조방희)가 주관한 장 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가 5일 장수전통시장에서 개최됐다. 행사에서는 우리 떡 만들기 체험 등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체험활동을 마 련하고 임실필봉농악단 및 각설이 공 연을 펼쳐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다.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1에 위치한 장수시장은 1977년 개설된 장수군의

대표 전통시장으로 공용터미널에 인

접해 시장접근성이 좋아 다채로운 볼

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왔다.

장수군과 장수시장상인회는 이용객 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2018 외글와글시장가 요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 장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 /장수=고판호 기자 하고 있다.



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은 6일까지 추억의 전시회 및 바자회가 진행된다.

무주종합복지관 추억의 전시ㆍ바자회

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 관(관장 이영재)은 6일까지 추억의 전시회 및 바자회가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다. 이번 추억의 전시회 및 바 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, 볼거리,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하여 운영 하였으며, 후원기금사업에는 반햇소 (사장 전병술, 무주군 적상면 소재)와 천지가든(사장 박순자, 무주읍 소재) 등 지역 업체에서도 착한 기부를 통 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.

5일 첫날 지역 내 어린이집, 지역주 민, 유관기관 및 저녁시간 가족단위로 지역주민 및 소문을 듣고 타 시・군 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자 약500명 이상 방문하였다.

복지관 이용자 이모(무주읍)씨는 "젊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찾아오고 함께 어울리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 고, 복지관 이용자로서 자부심을 느낀 다."라고 말했다. /무주=전문선 기자

